원수의 음모는 의외의 하나님계획

(시편 64:1~10)

1.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2.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3. 그들이 칼 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 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4.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5.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6.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원수의 음모는 의외의 하나님 계획>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원수의 음모는 의외의 하나님 계획'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원수가 음모를 꾸미거나 계략을 세웁니다. 혹은 직장에서의 사소한 따돌림이나 뒷담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대책은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는 것입니다. 그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으면 하나님께서는 대적하는 자들의 계략과 음모와 비난과 흠집 내기가 오히려 나를 목적지로 이끄시기 위한 추진력과 계획으로 이용됩니다.
'주짓수'라는 격투기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브라질에 유도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브라질의 전통적인 격투기를 가미해서 새롭게 만든 것입니다. 이 주짓수의 핵심은 상대방이 가해오는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으로, 상대가 나를 밀어붙이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상대방을 제압하는 힘 또한 강해집니다. 그 힘을 역 이용해서 제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 모든 대적들과 원수들의 나를 향한 음모나 위해 행위는 결과적으로 나의 삶의 전개를 다양하고 풍성하게 해주는 요소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원수들의 모든 음모를 기발한 섭리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발하신 선한 계획들로 인해서

나의 대적들은 나를 위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음모를 열심히 수행하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내게 이로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에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은 그들로 인해 생겨나는 두려움과 불안과 분노입니다. 이러한 감정에 휘둘리며 움직이고 대처하는 경우에는 원수들이 해악을 끼치려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자초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도청으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재선을 노리던 닉슨은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지 않았고, 오히려 라이벌인 민주당의 대선후보 맥거버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닉슨과 백악관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두렵고 불안하여 도청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무난히 재선에 성공하였으나 이 도청 사건이 밝혀져 닉슨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혀 불필요한 짓을 하게 된 것은 원수의 계략과 음모가 두려웠고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감정에 쫓겨서 행동하자 원수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하던 시절이거나 압살롬의 반란 사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건이 아니더라도 다윗이 적들에게 위협을 받던 모든 상황에 이 본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삶의 배경이기도 해서 오늘 본문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은 말씀드린 대로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을 향하고 있는 악인들의 음모와 그들로 인해 벌어지는 소동으로부터 생명이 보존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험한 바가 있는데 정말 집요하게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한 일일 수도 있고 뚜렷한 잘못이 없음에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향하여 악의를 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도저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괴롭고 힘든지 모릅니다. 맞서서 싸우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분노하고 같이 비난하고 헐뜯는다면 이미 심령은 피폐해지고 복지는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3~6절을 보면 노골적인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칼 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 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라고 했습니다. 칼이 눈앞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말로 공격하는데 무섭습니다. 4절을 보면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공격을 당할지 모르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비난과 중상모략을 당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화장실에 갔는데 같은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뒷담화하고 헐뜯고 비난하는 소리를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어서 5~6절을 보면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대적들은 상상도 못할 깊은 음모를 꾸며 실행하려고 하면서 '누가 우리를 보리요'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닉슨도 도청을 하고픈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출발점이 된 도청은 분명한 범죄입니다만 닉슨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대중적으로 인기가 없는데 상대정당의 후보는 인기가 많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모의하는 내용을 알고 싶고 대책을 강구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대적자들이 나를 향해 꾸미는 음모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음모를 꾸미기 위해 은밀히 모여서 의논하고 뒷담화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나와 원수들도 모르는 은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그 원수들의 음모까지도 들으시고 감안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정도로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라고 묻는다면 다들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계획까지도 포함해서 우리를 평강으로 이끄시려 하신다는 것까지는 믿지 못합니다.
대적들을 도청하고 싶을 만큼 궁금해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원수와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려는 계획 속에 원수들의 음모까지도 다 포함시키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궁금해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모든 음해와 계략들을 의외의 섭리로 바꾸시는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7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갑자기'라는 말처럼 의외의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깊이 생각해낸 주도면밀한 계략들이 선한 목적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둔갑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볼 때 기절초풍할 노릇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 대적들이 음모를 은밀하게 꾸밀 때에 하나님도 은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속에는 반드시 대적들의 음모나 계

략조차 계산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음모에 넘어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러한 음모를 전혀 모른 채 요셉이 맹수에게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불평불만분노하지도 않은 채 원래 노예로 태어난 사람처럼 충실하게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 가운데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보디발의 아내의 음모에 의해서 이번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서도 원래 감옥에서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충실하게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총리의 자리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신분상승입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외의 계획이고 기발하신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파는 형들의 지독한 음모를 이토록 기발한 섭리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는 일에 전념을 다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발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는다면 원수의 음모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나를 향해서 뒷담화 하는 사람들이 많고 왕따 시키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계획에 항상 놀랄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부으면 부을수록 내 삶의 이끌림은 갈수록 풍성해질 것입니다. 기발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남을 볼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는 먼저 나를 위해 세워두신 계획을 수행하시는 추진력으로 원수들의 음모를 사용하십니다.
요셉의 경우에 하나님은 그 계획의 추진력으로서 원수들의 음모를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사울의 추격이든 압살롬의 반역이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계획들을 이용해 다윗을 단련하셨습니다. 10년 동안 사울 왕의 추격을 받게 하시므로 다윗을 하나님께로 밀착시키셨습니다.
예를 들어 출근 버스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차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험상궂은 사내가 있고 왼쪽에는 예쁜 아가씨가 있습니다. 이때에 운전기사가 S자로 운전을 해서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쏠리게 하자 험상궂은 사내가 나를 확 밀치면 나는 아가씨에게로 밀려갑니다. 분명히 화가 나야 하는 상황이지만 반갑게 느껴집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이 오른편에 선 험상궂은 사내이고 하나님이 왼편의 아가씨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험상궂은 사울의 모든 계략과 음모를 이용해서 다윗을 하나님께로 강하게 끌어당기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울에게 추격당하는 10년간 다윗은 한없이 하나님께 밀착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갖도록 원수들의 음모를 이용하신 것입니다.
압살롬의 음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자리에 들어선지 30년이 되자 다윗의 마음에 빈틈

이 생겨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왕 노릇이라는 권력에 취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었다면 하나님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아들 압살롬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뛰어난 모사꾼 아히도벨 까지도 합세하여 다윗을 몰아붙입니다. 왕으로서 누리던 모든 것들을 마음에서 다 버리고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주식에 마음을 다 쏟기 위해서 다른 곳에 흩어져있던 모든 마음을 회수하게 하신 것입니다. 왕위와 그 특권을 버리고 후궁들과 백성들도 마음에서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압살롬이 원수가 되게 하시고 그 음모들이 수행되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이셔야 합니다.
10절을 보면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곧 하나님과 직선 관계에 선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갖고 싶은 것들에 마음을 보낸 상태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이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이 정직한 자입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라는 말은 돈이나 건강 혹은 가족의 형통을 즐거워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정직하게 마음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기쁨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기쁨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행여 마음이 원죄로 인해 세상을 추구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이용해서라도 그 길을 막으셔서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다윗이 10년이나 도망 다니던 시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혹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피난을 갈 때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괴로움의 과정을 겪은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노래를 하였습니다. 그 많은 원수들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만 기쁨임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모든 대적들의 음모를 선한 목적지로 이끄시기 위한 기발한 섭리로 바꾸셨고 그 추진력으로 생애를 이끄셨다는 고백입니다.
오늘도 회사에서 나를 뒷담화하고 왕따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어떻게든지 끼어보려고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오히려 십자가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해하려는 음모가 있는 현실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몰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도청하지 않고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끄실 선한 계획에 그 음모조차 포함시키실 것입니다.
원수는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요인입니다. 단 내가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마음을 끝없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보낸다면 원수가 있음을 자랑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라고 하였는데 원수가 있음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나를 공격하는 모든 위해요소들에 대해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불안과 분노를 죽이게 하시고 오직 내 마음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만 흘려보내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모든 원수의 음모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발하신 의외의 계획들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